***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2. 2. 24(목)** |
| **사진 설명** | **LS전선 서울사무소(LS용산타워)에서 이인호 기술개발본부장(CTO)과 한국전기연구원 명성호 원장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문의** | **김지운 차장, 02-2189-9597, 010-2936-7441,** [**jwkim6@lscns.com**](mailto:jwkim6@lscns.com) |
| **LS전선, 한국전기연구원과 ‘탄소중립 기술개발’ MOU**  **■ 친환경, 전력 전송 분야 신소재, 신기술 공동연구**  **■ HVDC, 전력망 안전진단 등 기술 협력**  LS전선은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측은 친환경 및 전력 전송 분야의 신기술, 신소재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 분야는 초전도 송배전 전력기기와 HVDC(고압직류송전)의 공동연구를 비롯, 전력망의 안전진단 기술 등을 포함한다.  초전도 케이블은 송전 중 전력 손실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친환경 케이블이다. LS전선이 2019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 했으며, 2021년 전력 전송량을 20% 이상 늘린 차세대 제품을 개발, 올 상반기 국내 첫 사업화를 앞두고 있다.  HVDC 역시 송전 중 손실이 적고 대용량 전력을 보낼 수 있어 장거리와 신재생 에너지 전력망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고 변전소, 송전탑의 크기와 수도 줄일 수 있어 환경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다.  AI와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전력망 안전진단 기술 연구에 대한 협력도 이루어진다. LS전선은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케이블의 과열 상태와 수명 등을 진단해 주는 ‘케이블 안전진단 서비스’ 사업을 해상풍력과 해저 케이블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이인호 LS전선 기술개발본부장(CTO)은 협약식에서 “한국전기연구원과 협력해 미래 전력 기술을 확보하고 고도화 하여 탄소중립 국가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연구원(원장 명성호)은 첨단 전기기술 분야 연구개발(R&D)과 중전기기 국제공인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 |